의례로 읽는 화계사 안팎의 문화

이성운(동국대)

한글요약

이 글은 '의례'라는 키워드로 화계사 안팎의 역사와 문화를 읽어낸, 약간의 문학성을 띤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등촉(燈燭)'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계사의 역사를 읽어보았다.

첫째, 1522년 서평군 이공(李公)의 제의로 신월 화상이 부허동에 있던 보덕암을 옮겨 현재의 화계사 자리로 옮겨 건립하여 화계사라 하였고, 1618년 화재로 전각이 소실되자 덕흥대원군 가문의 보시에 의해 1619년 초중창되었으며, 1866년 흥선대원군(1820~1898)의 시주로 삼창된, 화계사의 역사에 대해, 등과 촛불을 밝히는, 의례의 행위에 빗대 풀어보았다. 희미하게나마 전승돼온 역사를 '희미한 등촉'이라고 하였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법등을 이어온 사실을 '풍전의 법등'이라고 하였으며, 그래도 법맥이 꺼지지 않고 이어온 사실을 '상승의 법등'이라 하며 화계사 안팎의 역사와 의례 문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불전(佛殿)에 공양하고 승려에게 재(齋)를 올리는 행위는, 부처님 재세 때부터 있어온 출가와 재가의 관계를 이어주는, 보시 행위이다. 부처

님이나 수행자들은 신도들에게 법의 보시와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신도들은 공양물을 베풀어 승려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불교 시기에는 탁발에 의지하였으나 이후 사원에 기진(寄進)된 장원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의해 승단이 유지되었는데, '궁절'이라고 불린 화계사에는 궁인들의 공불행위가 이어졌다. 화계사 관음전에 자수관세음보살을 모신 원주(願主) 조대비(1808~1890)는 1880년 불전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농토로 바꿔 매년 공양 올리는 양식으로 삼도록 하였고, 또 관음전에 양식을 헌공하였다. 아울러 사중(寺中)의 스님들도 1905년 성도계를 조직하여, 자타의 성도를 위해 공양을 마련하는 등 사부대중이 공불에 흔연히 동참하고 있다.

셋째, 염불(念佛)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수행인데, 난행도(難行道)로 알려진 참선과 달리, 염불은 '이행도(易行道)'로서 재가불자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수행이다. 화계사 대방은 염불방으로 궁인들이 상사(上寺)하여 염불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만일 동안 염불을 수행하는 '만일염불회'가 화계사에 결성된 것은 1910년이었으며, 입적을 앞 둔 염불행자 월명 화상이 평생 이룬 전답을 출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간경(看經)·참선(參禪)과 더불어 삼문(三門)수행으로 널리 행해진 염불은, 조선 중기 이후 한국불교의 주요한 수행이었으며, 그 공덕은 지대하다. 화계사 만일 염불이 회향되었다고 보이는 1930년대 후반 이후 2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화계사에 고봉·숭산 등 눈 밝은 선지식들이 바랑을 내리게 된 것도 염불의 득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계사의 선사 숭산 스님이 국제포교 나서 큰 성과를 이룬 것도, 꽃이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답고 절이 아름다운 화계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화계사에는 국제선원이 개원되어 세계불교의 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화계사를 찾아 선대 덕 높은 수행자들의 수행과 의례를 따라, 불전에 공양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며 세계일화를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꽃·계곡·절과[三美] 더불어 화계사의 사미(四美)라고 하겠다.

주제어 : 화계사, 의례, 등촉(燈燭), 공불(供佛), 성도계(成道稧), 만일염불, 득과(得果)

목 차

1. 서언(緖言)
2. 화계(華溪)의 등촉(燈燭)
3. 공불(供佛)과 성도계(成道稧)
4. 염불(念佛)의 득과(得果)
5. 결어(結語)

1. 서언(緖言)

꽃이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답고 절이 아름답다는 화계사에 대한 연구는 2013년 1월 1차 세미나를 거쳐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학술논문집이 있다.[1] 이 논문집에는 '조선 후기 왕실과 화계사의 불교사적 위치'(오경후), '화계사의 근대사'(한상길), '승산 행원의 전법과 화계사'(신규탁), '화계사 가람의 특성과 역사성'(김성도), '화계사

1) 수암,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 화계사, 2013. 본고에서는 『화계사논문집』이라고 약칭한다.

소장 불화의 미술사적 의미'(지미령) 등 다섯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숭산 행원의 전법과 화계사'를 제외하고는 『삼각산화계사약지』[2]를 위주로 하여 화계사의 안팎을 고찰하고 있다.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인물이나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발생한 연유나 지나온 흔적을 하나하나 톺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를 정리하고 그 속에 살았던 인물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아마도 학술논문집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은 그 작업의 수위에 놓이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보이는데 기초 자료에 의거하여 넓고 깊게 화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 논문집에 실린 넷 편의 논문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삼각산화계사약지』는 1938년 안진호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사륙판 32쪽에 불과할 정도로 약소하며, 관광안내를 주목적으로 편찬됐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화계사약지』가 화계사에 대한 1차 근원자료라고 한다면, 『화계사논문집』은 2차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논자 또한 『화계사약지』를 의지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화계사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의례'를 설정하고, 이 키워드로 화계사 안팎의 역사와 신행과 수행 문화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화계사를 이루고 있는 불보살님과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전각과 조형물, 조석으로 염송·간경·해설하는 경전,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며 수행하는 대중은, 바로 의례의 주체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의례가 없이는 종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의례'라고 하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고정화된 어떤 특수한 것만을 의례로 이해하는 풍토가 적지 않게 산견된다. 가

---

2) 權鍾植, 『三角山華溪寺畧誌』, 三角山華溪寺宗務所, 昭和 13年(1938). 본고에서는 『화계사약지』로 약칭한다.

령 범음·범패·작법 등을 의례로 이해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그 결과 현재 의례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대한불교조계종 의례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범패와 작법을 주로 하는 스님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3] 이는 의례를 보편적인 측면보다 특수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례는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실재감을 고양시키며, 집단의 결합력을 굳게 하며 사회적 관습으로까지 진행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거나 사회 집단 구성원의 무의식에까지 침투하여 구성원 개인의 안정감을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집단 전체의 방향성을 부여하는'[4]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삼보를 뵙거나, 법우를 만나며 합장하고, 법당에 들어설 때는 반배하고 중앙 어간[문]을 피해 좌우 옆문을 이용하여 불전에 나아가 공양물을 올리고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린다. 또 법을 설하는 법사스님께 예를 표하며, 법사스님이 게송을 선창하면 대중은 '나무아미타불'로 화답한다. 대중이 함께하거나 홀로 참배할 때 여법하게 행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의례는 없다. 일상의 의례는 현실의 삶을 떠나 성립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일상의 보편성 위에 의례는 형성된다. 범패와 작법 등의 특별한 의례를 하는 것에 한정해 '의례'로 인식된 것은 불교가 국가사회와 공존하는 과정에 국가의 상·제례를 주관하는 모습에서 기인되어 생성된, 특수한 한 모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례의 보편성에 주로 의지하여 화계사의 역사와 신행과 수행 문화를, 다음 순서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사자상승하는 화계사의 역사를 '화계의 등촉'이라는 제목으로 약술하고, 3장에

---

3) 대한불교조계종 의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총무원 총무부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범패와 의례를 주로 하는 동주, 인묵, 화암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4) 홍윤식, 『영산재』(대원사, 1991), pp.13~14.

서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들에게 재를 올리는 공불재승(供佛齋僧)의 보시를 통해 구경에는 성불로 나아가는 모습을, '공불과 성도계'라고 정하고 논구해 보며, 4장에서는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염불'의 원형과 전개, 그리고 그 득과(得果) 등에 대해 '염불의 득과'라는 이름 아래 화계사 안팎의 의례를 유람하고자 한다.

이 논의들을 위해 『화계사약지』를 꼼꼼히 읽고, 보편적인 의례의 본의를 드러내어 불교의 이상으로 윤회 전생하는 화계사의 안팎을 그려갈 것이다. 이 과정에 의례에 대한 불교 전반의 현실적인 이해와 논자가 말하는 의례의 의미와의 간극에서 일어나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글을 더해갈수록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꽃과 계곡과 절이 아름다운 것은[三美] 그것이 본래부터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듯이, 일체유심조의 평이(平易)한 원리에 안주하지 않을 때, 그러한 것들은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하여 이 글의 주요 키워드들은 의례 속에서 쓰이는 용어들인데 이를 개념화해 보고자 하였다. '등촉' '공불' '성도' '염불' '득과' '일화'에는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의례 속에서 생성된 의미 위에 논자가 새로 부여한 의미도 더해져 있음을 밝힌다.

2. 화계(華溪)의 등촉(燈燭)

가) 등촉의 의미

고려 탄문(900~975) 대사가 창건한 부허동의 보덕암을, 암자의 선자 신월 화상이 1522년 화계동에 이전 재건하고 화계사라고 하게 되었다고 『화계사약지』는 전해주고 있다. 이 기록은 1619년의 「삼각산화계사중수연기

문」(이하 「중수연기문」이라 약칭한다)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문대사의 보덕암 창건이나, 이전의 첫 의견을 내고 찬조하였다고 보이는 서평군(西平君) 이공(李公)이나 중수(중수)에 찬조한 덕흥대군(德興大君) 이공(李公)은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5] 이 지적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종실록』에 서평공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중수에 희사한 덕흥대군도 화계사가 중수되기 60년 전에 이미 별세하였다거나 하는 것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중수연기문」의 기록은 어떠한 연유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전해주고 있을까. 여기 적힌 사실은, 사실여부를 어떻게 판정하고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정리한 정도로 치부해야 하는가.

본고의 집필에 주요한 키워드는 '의례'라고 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으로, 먼저 장의 제목 '등촉'의 의미를 해명해 보자. 등촉은 말할 것도 없이 등과 초이다. 이 둘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중생과 세상의 어둠인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 등불이다. 대표적인 등으로는 법당 앞마당 좌우에 밝히는 석등이 있고, 초로는 불상 좌우에 배치한 촛대가 있다. 지금은 사실 전등(電燈)으로 법당 안팎을 밝히지만 대개의 법당 앞에는 석등이, 안에는 촛대가 설치되어, 무명의 어둠을 깨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법당 안팎을 밝히는 등과 초가 역사와 어떤 관계인가. 선종의 역사를 등사(燈史)라고 하듯이 등과 초를 켜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의 교화를 위해 법륜을 펴는 것을 상징한다. 해서 등촉은 등불을 켜 법을 펼치는 과정을 은유한다. 다음 게송은 할촉(喝燭)이라고 하여 등촉에 대한 찬탄으로 <작법절차>에 등장한다.

---

5) 오경후, 「朝鮮後期 王室과 華溪寺의 佛敎史的 價値」『화계사논문집』, pp.15~17.

達磨傳燈爲計活　달마가 선등을 전득하여 세간의 삶을 삼으시고
宗師秉燭作家風　종사가 촉대를 잡고 가풍을 삼으시도다.
燈燈相續方不滅　등등이 서로 이어 반드시 꺼지지 아니하여
代代流通振祖宗　대대에 흘러 통행하여 조종을 떨치도다.[6]

<작법절차>는 현재 <영산재 작법>의 의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수륙재회를 설행하기 이전에 행하는 사전 의식과 같은 성격으로 상단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는 의식으로 수륙재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7] 여기서 말하는 '작법'은 수륙재회나 영산재회 등을 봉행할 때 행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주로 불교무용에 한정돼 쓰인다.

할촉 이외에도 <작법절차>에는 전후에 할향(喝香)과 할화(喝花)가 배치돼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난다. 여기서 '작법'은 일반적인 헌공 절차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작법절차>을 좀 더 살펴보자. 대중이 처음 법당에 들어가 향을 올리고 바라를 울린 다음에 인도하는 스님은 할향을 한다. 향을 살랐으니 향에 대해 찬탄한다. 그리고 향을 사르는 게송을 읊는다. 그리고 이 할촉을 한다. 향을 사르고 등을 켜는 순서에 대한 이견이 있겠지만 <작법절차>에는 향과 등의 순서이다.

그리고는 꽃에 대한 찬탄과 꽃이 피어나는 것을 찬탄하며 읊는다. 이어 삼귀의를 하는데, 오늘날의 의례로 보면 삼배에 해당된다. 이 때 삼귀의는 오늘날 널리 행하는 '귀의불양족존'이 아닌, '지심신례(至心信禮) 불

---

6) 學祖 譯, 「작법절차」(1496, 박세민 편,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1輯, 1993), pp.442~443.

7) 졸고, 전통문화 수륙재 복원을 위한 고찰, 『수륙재의 향연 학술 세미나』(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013), p.124.

타야양족존'이고 후렴으로 '만약 부처님께 귀의하면 지옥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사옵니다.'라고 염송한다. 달마야중에 귀의하면 아귀의 고통을 소멸하고, 승가야중에 귀의하면 방생(축생)의 고통을 소멸한다고 하며 삼귀의를 하고 있다. 이 삼귀의 의례를 보면 우리가 불전에 삼배를 하는 연유가 분명해진다.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를 소멸하기 위해 삼보에 귀의하고 절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삼귀의 전에 향과 등불과 꽃을 올리고 찬탄하는 것은, 대중이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기 전에 행하는 공양이고 그것에 대한 찬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행해지는, '등촉'을 밝히는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이 게송에 따르면 법당에 등촉을 밝히는 것은 달마조사께서 선의 등불을 전해주어 우리들의 생활의 계책으로 삼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또 선문의 종사 스님들은 촛불을 잡고 그 취지[宗旨]를 드날려 가풍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등불은 선종에서 자종의 역사서를 등사라고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등촉을 조사와 종사 스님들이 주고받으면서 꺼지지 않게 하여 대대로 이어오면서 자종의 종지를 항상 떨쳤다고 찬탄하고 있다. '할촉'은 등불을 밝히는 것을 찬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등불을 밝혀 전등(傳燈)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까닭에 이 장에서 말하는 '등촉'은 일차적으로 내가 법당에 올리는 등촉을 말하고, 이차적으로는 등촉을 밝힐 때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다. 바로 자신들의 역사를 찾아 세우고 밝히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화계사약지』를 간행하고 그 역사를 찾아올라가는 것은 등촉을 밝히는 일이고, 등촉의 역사를 확립하여 수행의 종지를 되찾아 올곧게 수행해 나가자는 서원의 발현이 된다. 「삼각산 화계사중건기」를 초고한 태백 노초 대생 스님은 '후인들이 (선인의 종적을) 좇고 (사상을) 따라 편집하는 것이 등등상속(燈燈相續) 대대불멸(代代不滅)'

이라고[8] 일찍이 갈파했다, 탁견이 아닐 수 없다.

나) 희미한 등촉

앞에서 법당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할향·할등·할화의 작법을 하는 '작법절차'를 소개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작법을 할까. 일반적으로 향을 사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작법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향을 사르는 것은, 향으로 저 먼 곳에 있는 하늘에까지 나의 정성스런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향을 살라면 향 연기가 향로에 가득하여 상서로움이 법당을 가득하게 해 준다. 상서로움이 가득해지는 그 향이 계향정혜해탈지견의 오분향이 되어 하늘을 덮어 우리들에게 끼쳐져서 우리들의 오분법신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향을 사르는 게송에, '아뢰는 향'이라는 뜻의 '고향(告香)', '통신의 향'이라는 뜻의 '신향(信香)'이라는 이름이 붙곤 한다.

그렇다면 꽃은 왜 올릴까. <작법절차>에는, 최상의 꽃으로 모란 작약 함당 황국 등이 등장한다. 꽃의 왕 모란은 오묘한 향기를 머금고 있고, 황금의 꽃술 작약은 온 몸이 향기롭고, 홍련의 연꽃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같고, 다시 피는 황국은 서리 뒤에 더욱 신선하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향과 등은, 사르거나 켜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가능하지만 꽃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할향 다음의 게송은, 꽃이 스스로 피어남을, 펴지는 행위에 착안하여 서찬(舒讚)게송이라고 명명돼 있다. 이는 우리의 선근공덕과 불보살님의 가지(加持)의 힘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의 불사들이 원만해지기를 바라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

---

8) 臺生, 『화계사약지』, p.3.

이렇게 향과 꽃을 올리며 찬탄하는 사이에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 세 게송을 삼등게송이라고 하는데 매 법회 때마다 올리고는 있지만 <상주권공>과 같은 의식에서는 향을 사르는 게송(燃香偈頌)만을 시설해놓고 그 이름을 '등게'라고 하고 있다.[9] 향과 등과 꽃의 기능은 위에서 밝혔듯이, 그 기능이 알리고, 밝히고, 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 셋의 기능을, 하나로 표현할 때는, 등촉을 밝히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해서 역사를 밝혀 나가는 과정은, 등촉을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등불은 밝아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제목을 '희미한 등촉'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화계의 등촉은 앞에서 언급한 『화계사약지』에 불과할 정도로 소략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화계사논문집』도 화계사 밖의 이야기는 비교적 자세하고 소상하게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10] 그렇지만 희미하게나마 비춰온 그 등불이 오늘의 화계사를 이어주고 있다. 그 꺼질 듯 이어 온 등불 아래 지금 화계사는 세계 일화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그 등불이 희미하게 된 연유와 희미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본지는 무엇인가.

다) 풍전(風前)의 법등(法燈)

『화계사약지』는 편찬자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그 증거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편재돼 있다. 이곳에 실린, 1619년 석도월 스님

---

9) 藝能民俗硏究室, 『佛敎儀式』(文化財硏究所, 1989), p.178; 沈祥鉉, 『佛敎儀式各論』Ⅴ (한국불교출판부, 2001), p.62.

10) 안팎의 일차적 의미는 사찰이나 불교와 같은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능례와 소례로 그 개념의 역을 넓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등불이 희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적은 「삼각산화계사중수연기문」에 의하면, 화계사의 역사는 고려 초기 탄문 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부허동의 보덕암을 1522년 서평군 이공이 암의 선자 신월 화상과 상의하여 현재의 터로 옮겨 세우는 것으로[11] 법등이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건(移建)한 지 백 년이 좀 못 된 1618년 홀연히 불이 나 덕흥대군 이공이 재료와 돈을 출연하여 장인을 불러 나무를 다듬고 하여 5개월 만에 낙성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수연기문」은 덧붙여 전해 주고 있다.

적어도 화계사의 초기 이건 연기는,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새롭게 해석돼야 할 당위가 적지 않다. 이전 건립과 중수의 큰 시주 단월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건의 인연을 이룬 서평군의 부재도 그렇고, 중수의 대 시주로 언급된 중종의 서자 덕흥대군이 화계사 중수 60년 전에 별세한 사실도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 더해 탄문 대사의 보덕암 창건 또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덕흥대군을 덕흥대원군가로 해석하는 추론에[12] 수긍할 수 있다.

『화계사약지』는 희미하게나마 법등이 전해진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좀 더 등촉을 밝혀 보자. 보덕암을 이전하여 화계사를 건립한 해는 1522년 중종 17년이다. 이 시기의 대내 불교 상황은 사실상 국가의 억불 정책이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국가로부터 공인된 후 불교는 국가의 제례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국가로부터 전답이나 노비와 같은 인력 지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었다. 허나 숭유억불을 내세운 조선에 들어와서는 종전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하나하나 잃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

---

11) 道月, 『화계사약지』, p.2.

12) 최완수, 「화계사」, 『명찰순례』 3(대원사, 1994), p.323.

상례와 제례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세종 초기 1420년 7월 칠칠재의 법석(法席)이 상왕 태종(1367~1422)의 명의 의해 폐기되는 것을[13] 시작으로 1477년 성종 때는 임금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수재가 폐지되었으며,[14] 연산군 10년에는 국행 칠칠재가 사실상 폐지되었고,[15] 중종 11년 1516년에는 선왕 선후의 기신일에 행하던 기신재(忌晨齋)조차 폐지되어[16] 공식적인 국가제례에 불교는 완전히 배제되게 되었다.

국가 제례를 담당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게 된 불교는 자력갱생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최악의 암흑기로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신재가 폐지된 이후 권력을 쥔 유자들은 불교의 뿌리까지 뽑아 없애려고 승려들을 찾아내고 사찰을 태워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17] 이 무렵 능성 현령 송세림은 승려를 찾아내어 군적에 올리고 새로 지었거나 수리한 큰 절이 모두 산에 있으므로 승려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찾으면 동으로 가니, 도첩 없는 승려만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절을 태워 헐도록 명해주기를 상소하고 있다.[18]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들을 군적에 편입하는 폐불(廢佛)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대에 화계사가 이전 건립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을 불태우는 시기에 창사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전이라는 명분으로 중창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일제 때 조계사의 창건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13) 『세종실록』 권 8, 1420.7.10일조.
14) 『성종실록』 권 87, 1477.12.4일조.
15) 金容祚, 『朝鮮前記의 國行祈禳佛事硏究』(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p.258.
16) 『중종실록』 권 25, 1516.6.2일조.
17) 『중종실록』 권 25, 1516.7.25일조.
18) 『중종실록』 권 25, 1516.7.21일조.

억불이 성행할 때도 왕실 원찰이나 원당 등은 그 폐해가 적었으므로 화계사의 이건에 관여한 서평군 이공의 등장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양 밖 백석 아래 맑은 계곡과 꽃향기가 온 산을 메우는 수승한 땅에 절을 옮겨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화재로 불 탄 절을 6개월 만에 중창할 수 있었던 것도 덕흥대군 가문의 시주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화계사중수연기문」이 이건 후 97년에 작성된 것이라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록 속에 부재하고 있는 사실들은 앞으로 자료가 더 발굴되면 그 등불도 자연 더 밝아질 것이다.

라) 상승(相承)의 법등

보덕암의 창건주 화엄의 종장 탄문대사가 언급된 것은 해명해 보면, 한국불교의 수많은 사암의 창건 연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국 각처에 산재한 원효·의상 스님 등에 의한 창건 연기는 사실이든가 아니면 고사(高師)의 정신과 사상의 계승하려는 의지이거나 가탁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연유일지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는 현금처럼 자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호가호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기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적어도 화계사는, 보덕암의 선 수행자라고 보이는 신월 스님과 서평군 이공에 의해 1522년에 이건되고, 덕흥대군 가문의 지원으로 1619년에 중수되었고, 이로부터 247년 뒤 1866년부터 흥성대원군에 의해 불전과 승방이 중건되면서 그 등불이 더욱 더 밝아지게 되었다. 대웅전만이 유일했던 화계사에 1875년 관음전이 세워져 자수로 만든 관음상을 봉안하였고, 1878년에는 지장전을 건립하여 황해도 백천군 강서사에서 옮겨 온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봉안함으로써 3전이 완

성된다. 이후 1885년에 산신각이 창건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1964년의 천불오백성전의 건립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범종각이, 1975년에는 삼성각 건립되었으며, 1991년에는 대적광전이 낙성되어 화계사의 위용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98년에 일주문 건립되어[19] 대체적인 현재의 가람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창건(1522), 중수(1619), 삼창(1866) 등의 기록으로 볼 때 화계사의 전등은 천년을 이어오며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세부적인 사자상승이 일일이 기록돼 있지 못하지만 당우를 중건한 스님들과 단월, 그리고 불전에 등촉을 밝히며 수행과 전법을 이어온 당우와 그곳에 남겨진 숨결과 편린 등을 통해 그것을 느껴 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화계사의 이건과 중수의 역사를 볼 때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맹자의 말씀이 새삼 떠오른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화계동의 수승한 지리는 당우를 존재하게 했고, 지리적 이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승속이 -서평군과 신월 화상이 그러했듯이- 합심하여 이건하였고, 대원군이나 조대비 등 왕실의 단월을 인도한 스님들의 의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인화(人和)하는 모습은 근대에 올수록 더욱 그 빛을 발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자수관음상의 조성이나 지장보살과 시왕의 이안, 성도계의 설치와 만일염불회의 창설에서 그 정점을 찍고, 현대에 와서는 고봉과 숭산 스님과 같은 대 선지식이 화계사에 바랑을 내리고, 세계 속의 한 꽃으로 피어남으로써[世界一華], '지도무형(至道無形) 지도무언(至德無言)'[20]을 완성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19) http://www.hwagyesa.org/maha/introduce/introduce_01_3.html 참조.

20) 이 표현 「화계사대웅보전중건기문」을 적은 환공 치조 스님이, 화계사 대웅보전을 중건한 용선 초암 두 대사를 찬탄하며 고덕의 말로 말하고 있다. 『화계사약지』, p.4.

3. 공불(供佛)과 성도계(成道稧)

가) 보시의 의의

불교가 발생한 이래 재가 불자의 제일덕목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이다. 불타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고, 처음으로 전법을 한 이들은 수행자 스님이었다. 그분들에게 중도의 실상을 보여 주어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하지만 일반 재가자들은 믿음이 깊지 못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설파하신다. 그리고 계율을 지니고 살기를 권한다.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는다고 설하셨다. 이에 반해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8정도와 같은 조도(助道) 수행법이 설해졌다.

그렇지만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 재가와 출가의 수행법은 6바라밀로 일치되어 차이가 무화된다. 초기 대승불교는 재가 보살과 출가보살의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곧바로 대승의 출가보살들도 삭발을 하고 염의를 입고 비구계를 수지함으로써 출가와 재가의 차이가 엄존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도 수행만큼은 철저하게 육바라밀이 강조되었다. 잘 알다시피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는 베푸는 것이다.

보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삼단(三檀)보시가 있다. 재시·무외시·법시가 그것이다.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재시라고 한다. 재시에는 탑과 절을 짓는 보시, 의복과 일용품을 보시 등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시의 주 품목은 음식이다. 음식을 보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외시는 무엇인가.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을 시무외자라고 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럼 법시는 무엇인가. 법을 베푼다는 것으로 무명에 빠진 이들에게 진리를 설해준다는 의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법'은 존재의 양상을 지칭한다. 일체 존재는 무상하고, 고통 속에 있으며, 무아하다는 것이 제법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법의 실상을 보여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논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불교의 전파는 곧 법의 실상을 전파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제법의 실상을 담아 놓은 것이 경전이고 그 실상을 설한 분이 부처님이므로, 법은 부처님의 법으로 환치된다.

불교가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의 보시의 양상은 대단히 단순하다. 출가 수행한 스님들은 법을 베풀고[법시] 재가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재시] 이 양자는 보시라는 행위로 관계가 이어진다. 단순해 보이는 보시 행위는 곧바로 불교를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보시가 없으면 불교는 사회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불교가 유지되게 하는 보시, 보시는 불멸 이후 동아시아불교 권에서는 공양과 재로 양분돼 수용되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들께 재를 올리는 것이다. 억불의 조선시대 유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불교의례는 '재승'·'반승'·'일재' 등 스님들께 일반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었다.[21] 불교를 탄압하려는 유자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재승[齋]은 불자들의 신행으로 그 전통이 굳건히 지켜져 왔으며 억불의 시대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재를 올리는 행위는 불교 일반의 종교행위였고 의례였으므로 비단 화계사만의 역사와 문화는 아니다. 하

---

21) 졸고, 「영산에 꽃 피운 일응 어장」, (사)일응어산작법보존회·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편, 『영산에 꽃 피다』(정우서적, 2013), p.537.

지만 다행스럽게 구체적인 사례 몇 건이 『화계사약지』에 기록돼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공불[佛供]의 문화를 품어보기로 한다.

나) 궁인(宮人)의 공불(供佛)

화계사 3창이 시작된 시기는 1866년 대원군의 시주에 의해서 불전과 승방이 중건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9년 뒤 관음전과 지장전이 건립되어 대웅전과 더불어 삼전이 숲처럼 나열되어 사격이 제대로 갖춰지게 된다. 3전이 갖춰져 나열한 모습을, 영취도량 같고 기원정사를 방불한다고 「화계사명부전불량서」는 묘사하고 있다. 3전을 갖춰 불보살님을 모셨으니 사시에 마지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화계사 관음전에 자수관세음보살을 모신 원주(願主) 조대비(1808~1890)는 1880년 불전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농토로 바꿔 매년 공양 올리는 양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매일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낮에는 향로에 향불이 끊이지 않았고, 밤에는 등촉의 광명이 붉게 빛났다. 일찍이 이건될 때 여래의 기별을 받았음이 분명하며 천년만년 연화대 위에서 법왕의 보처로서 법륜을 굴릴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22]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말기 조대비는 흥선대원군(1820~1898)과 더불어 화계사의 법등이 굴려지게 한 대 공덕주라고 할 수 있다. 명부전 불량을 헌공한 조대비는 이로부터 10년 뒤에 80세로 천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화계사명부전불량서」의 찬탄은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또 「화계사관음전불량문」은 관음전에 올릴 공양을 위해 헌공한 예이다. 1883년의 일인데, 이때 대왕대비인 조대비를 비롯하여 왕대비 홍씨,

22) 『화계사약지』, p.9.

경빈 저하 김씨와 상궁 15인이 함께 시주하여 관음전 헌공의 자량을 마련하고 있다. 불량을 헌공하기 이전 8년 전에 모신 자수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관세음보살은 상궁들이 자수로 놓은 것으로 이는 바로 이전 해 1874년 훗날 순종이 되는 원자의 장수를 축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23] 소실돼 전하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 신심과 그 역사는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관음보살을 봉안한 지 8년 뒤에 공양을 올릴 수 없게 된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화계사관음전불량문」의 관음전에 모셔진 관음성상의 찬탄은 당시 궁인을 비롯한 불자들의 신심을 잘 보여 준다. 영취산의 관세음보살님의 참 모습이고, 녹야원의 금빛 부처님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와 세상을 복되게 하고 백성들이 복을 비는 곳이라는 것이다. 당시 금산(錦山) 화상이 여러 정성을 모으고 단월들에게 권선하여 함께 재산을 출연해 헌공하여 선령을 위해 복전을 닦았다. 그 복덕은 앞에도 뒤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복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불량문은 사적 기록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이 피력돼 있다. 이 불사는 없었는데 금산 화상이 시작하여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음 구절은 기록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내가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시작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기록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드러내겠다. 시작이 없었다면 어찌 기록할 것이 있고 어떻게 처음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맑은 차와 백미는 긴 세월에 다함없는 공양으로 자리 잡는다"[24]고 하여 시주를 권선하고, 시주하고 기록한 공덕으로 자타가 일시에 불도를 이루기를 발원하고 마치고 있다.

---

23) 지미령, 「화계사 제작 불화의 미술사적 의미」, 『화계사학술논문집』, p.125.
24) 「화계사관음전불량문」, 『화계사약지』, p.9.

다) 사중의 성도계

대비와 상궁 등 재가 신녀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화계사 불전에 공양하였지만, 화계사 출가 수행자들도 스스로 공양물을 마련하여 공양하고 있다. 그 예는 1905년에 결성된 성도계를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지적하였지만 조선의 중종 조를 지나면서 불교는 국가제례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자립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원의 자립경제를 위해 사찰 내에 계의 결성이 성행했다.

계(契, 稧)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출자하여 상호부조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임[25]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찰계는 신앙공공체적 목적을 전제로 성립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향도(香徒)나 고려시대의 보(寶)와 결사(結社) 등도 넓은 의미에서 사찰계에 포함할 수 있다.[26]

「화계사성도계서」의 의하면 1905년 두흠(斗欽)·포선(抱宣) 두 스님과 중청의 여러 스님들이 중심이 된 성도계가 결성되었다. 특별히 믿음을 내서 각자 백금(百金)의 재산을 출자하여 공양의 밑천으로 삼는 계를 결성하고 성도계라고 이름을 붙였다. 성도계의 결성 목적은 부모님이나 스승을 위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뽑아내기 위하여 지금부터 천년 백년까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밑천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었다.

결계의 서문에는 '靡不有初(미불유초) 鮮克有終(선극유종)(처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끝을 얻은 사람은 적다)의 『시경』을 인용하며, 결사(계)를 하는 이들은 처음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끝이 아름답기를 서원하고

25)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硏究』 개정판(博英社, 1966), pp.41~97.
26)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경인문화사, 2006), p.5

있다. 세간의 휘지부지, 용두사미를 경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위의 티끌 같은 재산을 출연하여 무루의 큰 복을 이루어 위로는 네 큰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삼악도의 중생을 구제하여 법계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같이 금강의 큰 도량에 들어가서 일시에 함께 납월 8일 성도한 날에 불도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 길임을 선언하고 있다.[27]

1905년 음력 9월에 그 해 12월 8일의 성도일(成道日)를 3개월 앞두고 결성한 이 계의 서문은 진묵(점)겁 전 성불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 시대 불교에 널리 신앙되던 법화사상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무튼 사중의 스님들이 부처님의 성도일을 기념하며 천년 백년 부처님께 공양의 밑천을 만드는 계를 결성하는 것은 승려 공불(供佛)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사찰계가 보사(補寺)와 식재(殖財)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화계사의 식재는 순수한 공불(供佛)과 수행성도와 제도중생의 본연에 충실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다.

라) 특징과 공양의례

탁발하러 나온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거나 부처님과 스님을 청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공양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양의 형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현대는 사회 현상의 변화로 인해 수행자들의 탁발이 사실상 행해지기 어렵지만 사찰을 찾아 공불(供佛)하고 재승(齋僧)한다. 이 공양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의 나타난다. 단지 한국불교의 발달 과정상 순수한 모습의 재를 올리는 모습은 반승이나 일재(日齋) 등 극히 소수이거나 소멸되었고, 대중

27) 法溟, 「화계사성도계서」, 『화계사약지』, pp.11~12.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조선 초기 흥천사 사리각 축조 노역에 동원된 스님들에게 매일 매일 음식을 공양한 일재에[28] 대해, 억불의 시대에 유자들은 민중을 호도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일반 신자들이 스스로 신심을 다해 일재를 행하고 있다. 이 사실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신앙이고 정서임을 잘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재세 시의 탁발 공양법은 탁발 나온 스님들에게 골고루 공양을 나누어 드리면 되었다. 하지만 부처님 입멸 이후에 부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할 때는 많이 달라진다. 영산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다음의 <식당작법>이나 일상의 발우공양법인 <대심경>·<소심경> 등의 의례는[29] 재승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궁인들의 공불은 명부전이나 관음전에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절에서 행하는 일상의 마지공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시(9~11)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를 올리고 간단한 축원을 한다. 이럴 경우 대개 시방에 상주하는 불법승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봉안한 성현께 공양 올린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법승 삼보는 상주하는 일체의 삼보라고 하여 그 대상이 무한해진다. 그래서 공양물을 변화시키는 변식진언 등을 염송하며, 진언가지의 힘으로 음식이 질적 양적으로 한량없이 늘어나 한량없는 삼보님께 공양되어진다고 관상(觀想)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도력이 높은 수행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법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진언을 염송하여 진언 가지의 힘에 의지하기도 한다. 대중공양의 경우는 실제 공양물을 대중 숫자에 맞추어 준비하게 되

---

28) 『세종실록』 권80, 1438.3.25.일조.

29) 영산[재] 공양을 올린 다음의 재승(齋僧)작법인 <식당작법>은 『석문의범』 상권(pp.128~132), 발우공양법인 <대·소심경>은 『석문의범』 상권(pp.98~107) 참조.

므로 오백승재 천승재 만승재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백승재의 대표적인 예로, 목련이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 하안거를 마친 오백 명의 스님들께 재를 올려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추천하는 『우란분경』의 예를 들 수 있다.[30] 선[망]부모를 위한 추천의식으로 재를 올리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지만 후대 한국불교에서는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칠칠재나 소상·대상재 등은 당해 일에 절을 찾아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선부모나 조상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것이다.

궁인의 공불이나 사중의 성도계의 헌공은 한결같이 원자(元子)의 축수(壽命長壽)를 위해서가 아니면, 선[亡]부모나 사승의 추천을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행해졌다. 그러나 사중의 성도 수행자들을 위할 때는 출가스님 스스로 공양물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화계사가 왕실의 원찰답게 소수의 궁인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공양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근교의 원당이나 능침의 사찰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출가스님들이 출연하여 결성된 화계사의 성도계는 사찰 출입이 자유로워진 현대에 이르면 도속 본연의 관계로 정착된다. 법시의 승도와 재시의 속인의 관계는 신도회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어 수행자로서의 출가스님의 지도 아래 신도들에 의해 사찰의 대소사를 집행해 가는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

30) 竺法護 譯, 「佛說盂蘭盆經」(『大正藏』 16), p.779.

4. 염불(念佛)의 득과(得果)

가) 염불의 전개

염불은 문자 그대로 불을 염한다는 뜻인데 염불에 대한 사상적 발달과 신행은 적지 않게 발달돼 왔다.[31] 염불의 '염'자는 억념(憶念) 작의(作意) 등과 같이 의식작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염과 관련된 범어도 많지만 한자어 또한 관념(觀念) 신념(信念) 사념(思念) 억념(憶念) 칭념(稱念) 등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불교에서는 염불하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소리 내어 외우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생각된다.

염불에는 석존의 실상과 상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관념염불(觀念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과 공덕과 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억념염불(憶念念佛)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용어가 등장한 것은 염불이 이미 수행방법으로 발전하고 정착되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염하는 대상도 초기 원시불교 시대에는 석가모니 한 분에 한정되지만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불(佛)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그 염하는 대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의 한 끝에 있는 만큼 염하는 대상이 불과 보살 등 신앙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초기 불교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나무불'이라고 칭해지고 염해졌다.[32] 염불의 원류와 전개의 단초가 보이는 『잡아함경』을 조금 읽어보자.

(1158)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

---

31) 염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물로 『念佛의 源流와 展開史』(李太元, 운주사, 1998/2003)이 있으며, 이 단락은 일부 이 책에 의지한다.

32) 李太元, 『念佛의 源流와 展開史』(운주사, 1998/2003), pp.65~68.

> 급고독원에 계실 어느 한 때였습니다. 그때 사위국에 바사타 바라문의 딸이 불법승을 믿고 귀불 귀법 귀비구승하고 불법승에 대해 여우처럼 의심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또한 고집멸도에 대해서도 의혹을 떠나 사제를 보고 과보를 얻고 틈이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바라두바자 종성의 바라문이었는데, (그녀는) 매일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즉 적은 득실이 있을 때에는 곧 "나무불"하고 칭하며, 여래께서 머물고 계신 방향을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세 번 말했습니다. "나모 다타가도 아라하 삼먁삼불타 몸은 금색이고 둥근 광명은 한결같고 몸은 니구율수와 같이 원만하며 훌륭한 법을 잘 말씀하시는 석가모니께서는 존귀하시며 선인 중의 우두머리시며 나의 크신 스승이십니다." 이때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성질내며 기뻐하지 않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귀신 붙은 소리야, 여기에는 뜻이 없어 삼명 대덕 바라문을 버리고 저 머리 깎은 사문을 칭탄하다니. 그렇게 칭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스승에게 가서 따져 어느 것이 수승한지 알아봐야겠어."[33]

이 경전을 제법 길게 인용한 것은 이 글을 인용한 글에서 축약해서 옮기는 과정에 신행하는 사람이 남편으로 바뀌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34] 이 경전은 '나무불'하는 염불의 초기 형태만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첫째 신행의 주체가 아내이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처님께 항의하러 가고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듣고, 그가 기뻐하자 부처님은 보시지계 생천의 가르침을 차례대로 설해준다. 둘째는 '나무불'과 함께 '나모 다타가토 ~ 삼불타 ~ 나의 스승이십니다.' 하는 장구는 현재 대승불교 밀

33) 「잡아함경」 권42(『大正藏』 2), p.308b.
34) 李太元, 『念佛의 源流와 展開史』, p.69.

교의 다라니로 정착돼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35]

결국 부처님을 염상(念想)하며 칭명(稱名)하는 염불은 여러 계통의 경전에 중요한 수행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토계통 경전이나 신앙에 의해 현재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염불의 신행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염불의 공덕은, 염불을 행하는 이의 공덕에 한정하지 않고 불명을 칭념하여 들려주게 되면 듣는 이가 명호를 듣고 왕생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성호를 들려줌으로써 왕생으로 인도한 모습은 <관음시식>과 같은 시식의식의 '칭양성호' 의식에 잘 나타나 있다.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일주일 동안 일심불란하면 임종 시에 아미타불과 그 국토의 여러 성인들이 이 사람에 앞에 나타나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미타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36] 또 법장비구의 48대원 가운데 18번째 원에서 "설령 내가 부처를 이루어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나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여 십념에 이르도록 (아미타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인은 제외됩니다."[37]라고 하여 염불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이 염불은 관상염불과 칭명염불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칭명염불이 염불신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칭명염불에도 일정한 숫자를 채우는 수량염불이나 만일염불과 같이 일수를 정해놓고 행하는 일수염불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탐색의 범위가 너

---

35) 대표적인 예로 사대주나 해탈주 등은 이와 같은 문장 구조로 이뤄져 있다. '南無解脫主世界 虛空功德 淸淨微塵 等目端正功德 相光明 華波頭摩 琉璃光 寶體香 最上香 供養訖 種種莊嚴頂髻 無量無邊 日月光明 願力莊嚴 變化莊嚴 法界出生 無障碍王 如來阿羅訶三藐三佛陀' 「오천오백불명신주제장멸죄경」(『大正藏』 14), p.318a.

36) 「佛說阿彌陀經」(『大正藏』 12), p.347b.

37) 「無量壽經」(『大正藏』 12), p.368a.

무 넓어져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화계사에도 창설되었던 만일염불만 살펴보고자 한다.

나) 만일염불

염불결사의 기원은 중국 여산 동림사 혜원(334~416)의 백련결사에 두고 있으며,[38] 스님은 「염불삼매시집서」에서 염불삼매는 단순한 칭명염불이 아니라 선정삼매와 같다고 설파하고 있다. "삼매란 사고[思]를 오로지 하고 생각[想]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사고를 오로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뜻을 하나로 하여 분별하지 않는 것이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氣)를 텅 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기를 비우면 지혜는 고요하여 그것을 비추고, 정신이 맑아지면 어떠한 깊고 미세한 도리에도 투철하지 않음이 없다."[39]

국내 '염불' 신앙의 역사는 원효 스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은 <원효불기>조목에서 "원효 스님은 계를 잃어 설총을 낳은 후 속인의 옷으로 바꿔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하였다. 스님은 우연히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괴상한 모양의 큰 박을 얻어, 그 모양을 따라 도구를 만들고는 화엄경 속에 나오는 '모든 것에 걸림 없는 사람은 단박에 생사를 벗어난다(一切无涯人 一道出生死)'라는 구절을 따라 무애라고 하고, 천촌만락을 다니면서 때로는 노래 부르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중생들을 읊어서 교화하고 돌아오곤 하였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몽매한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모두 같이 '나무'라고 칭하게 되었다."[40]고 하며 '나무아미타불'을 보급하는 데 원효의

---

38) 한보광, 「萬日念佛結社의 成立과 役割」, 『信仰結社硏究』(여래장, 2000), p.106.
39) 慧遠, 「念佛三昧詩集序」, 『廣弘明集』 권30(『大正藏』 52), p.351b.

공이 컸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원효 스님은 제자 광덕과 엄장에게 삽관법[淨觀法]을 만들어 염불수행을 지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방극락에 왕생하게 하고 있다.[41] 또 『삼국유사』의 <욱면비염불서승>조의 경우는 개인적인 염불에서, 염불신앙이 결사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금강산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로 발전돼 더욱 유명하다.

또 고려 초기 포산에서 결성된 만일미타도량은 전형적인 염불결사라고 할 수 있다. 1092년 고려 선종 때 왕태후가 백주 견불사에서 천태종의 예참법을 일만일 동안 행하였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 또한 만일염불결사의 한 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함허 득통(1376~1433)의 염불향도, 연담 유일(1720~1799)의 『임하록』의 「蓮池萬日會序」에도 염불결사의 예가 보인다. 이 「연지만일회서」에는 염불 예불 공양불의 삼불(三佛)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규약을 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17~18세기경의 사찰의 신앙결사는 염불계 동갑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경에는 만일염불결사가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승돼 나갔다. 이 같은 염불결사는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염불결사를 통해 성불을 이루고 사원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억불숭유의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집단을 존속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4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이후 한국불교의 염불결사나 염불신앙은 장구한 역사 속에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행해졌다. 화계사의 염불신앙

---

40) 一然 撰, 『三國遺事』(『한국불교전서』 6,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p.348.
41) 一然 撰, 『三國遺事』, 위의 책, pp.358~359.
42) 한보광, 앞의 논문, pp.109~126.

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는 승방(보화루)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다. 1866년에 건립된 승방은 대방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당시 성행했던 염불신앙이 행해졌다.[43] 일반적인 사찰 배치를 보면 선당과 강당이 법당 앞 좌우에 위치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염불당(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경산 일대의 왕실 원찰에는 법당 바로 앞에 대방을 건립하여 대중이 불당을 향해 염불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배치돼 있다.[44] 사실 화계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원찰이나 원당의 불당[법당]은 예배하고 공양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장시간의 염불 등의 수행을 위해, 관음전이나 명부전보다 먼저 승방인 대방이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화계사의 만일염불회 창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는 따로 있다. 대부분의 만일염불결사가 다중이 참여하거나 출연하는 형태였지만 화계사 만일염불회에는 염불 행자 월명 화상 단독 보시라는 데 특징이 있다. 물론 주관은 화주 월해 화상과 훗날 봉선사 주지를 지낸 홍월초 화상 포응과 동화 등 제 스님이 참여하고 있지만 출연은 월명 화상이 평생 모은 강원도 양양의 밭 기백 두락(마지기)였다. 월명 화상은 머리 깎고 입산한 이래 50년 동안 한결같이 염불을 종지로 삼고 수행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병으로 고통을 받자, 임종에 이르렀다는 것을 안 스님은 어느 날 저녁 화주 월해 화상을 청해 사후에 대해 상의한다. 자신이 소유한 양양의 땅은 승속 간에 유산 받은 땅이 아니라 본인이 입산한 이래 빈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며 그 땅의 처분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그때 함께 있던 여러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스님께서는 평소 염불로써 살아오셨으니 이 밭은 사중에 다 넣어 만일 염불하는 이들의 월 급료로

---

43) 김성도, 「화계사 가람의 특성과 역사성」, 『화계사학술논문집』, pp.103~105.
44) 김성도, 위의 논문, pp.110, 주 38.

하자고 제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천년만년에 이르도록 염불하고 금고를 울리는 소리가 도량에 끊어지지 않게 되어 설령 만인이 염불을 권하지 않거나 화상의 몸이 비록 서방정토에 돌아갔을지라도 그 명성은 절에 있게 되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백 년을 흐를 것이니 어찌 세간의 일대사인연이 아니겠느냐고 하며, 혹 그렇지 못하면 재산은 다 허무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며 화상의 허락을 청하자 화상은 헌신 버리듯이 땅 문서를 사중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화계사만일염불회의 창설이 이뤄지게 된다.

평생 염불하며 모은 월명 스님의 밭에서 나온 소출은 만일 염불하는 스님들의 월 급료로 쓰이게 된 것이다. 요즈음도 사중 스님들에게 보시가 지불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각방 살림이므로, '각방에 따라 월 3말의 쌀' 이런 식으로 공양비를 분담했다. 이때 말하는 만일 염불하는 스님들의 월급은 이와 같은 차원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45]

월명 스님에 의해 화계사에 만일염불회가 창설되었지만 이후의 흔적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차제로 만일염불회의 수행을 행했는지는 잘 알기 어렵다. 단지 16세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염불작법」이나 오늘날 염불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다) 염불 행법

먼저 「염불작법」(1575)의 행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我今一身中 則現無盡身 遍在諸佛前 一一無數禮 : 내 몸에서 다함없는 몸을 내어 두루 계신 부처님께 일일이 절합니다'의 예불게송과 보례진언

45) 각방 살림 전통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화계사 선덕 진암 스님은 1958년경 화계사에 바랑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각방에는 3말의 쌀을 내고 손님이 오면 하루 3홉 씩 추가로 쌀을 냈다고 증언하셨다.

을 하고 '나무과거비바시불 ~ 나무석가모니불'의 과거칠불과 '당래하생미륵존불'을 칭명 예경한다.[46] 그리고 개경게송과 진언, 정법계진언, 정삼업진언을 각 3편 하고 천수다라니를 5편을 염송한다. 이어 도량찬 게송을 하고 수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귀의삼보'를 하며, 참회게송을 하고 회시게(回施偈: 諸佛正法菩薩僧 直至菩提我歸依 我以持戒諸善根 爲有情故願成佛: 일체 부처님의 정법은 보살님과 스님들이 곧바로 보리에 이르게 하니 제가 이제 귀의하며 나는 계율을 지녀 얻게 되는 여러 선근을 유정을 위해 모두가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외 1수)를 하고 '아미타불진금색~' 하는 현재 장엄염불 선행 게송 3수를 하고, 다음에 염불로 들어간다.

이때 선창되는 염불송은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만억 일십일만 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나무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제보살'을 칭명하고 다시 현재의 장엄염불의 모습이 이어진다. 십호의 나무아미타불과 장엄염불이 길게 이어진 다음 원왕생 게송을 하고 상품상생진언 이후 축원을 하고 관무량수경의 경문을 읽고, 48대원의 원력장엄을 염송하고, 오늘날의 천수경의 여래십대발원문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발원이귀명례삼보'하고 1배의 절을 하며 마친다. 이후에 염불을 권하는 글이 이어져 있다.[47]

이상의 「염불작법」은 이후 조석송주로 정착되다가 현재 독송되는 '현행'천수경으로 축약 회편(會編)돼 유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8]

염불을 위한 「염불작법」의 차서는 정연한 사상 위에서 펼쳐지고 행해

---

46) 칠정례 칭명 예경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불교 예경의례의 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47) 전라도 담양 용천사 간행, 「염불작법」,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 pp,3~7.

48) 졸저, 『천수경, 의궤로 읽다』(정우서적, 2011)는 현행 천수경의 성립을 다양한 의례에서 활용되던 의궤들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염불작법의 천수다라니나 게송과 발원 등은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고 있지만 지나치리만큼 번잡하다. 그러다보니 자연 이와 같은 의례 차서는 '염불원'과 같은 집합된 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면 행해지기가 쉽지 않다. 현재 염불행자들은 대방이나 법당에서만 염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늘 염불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의 염불 행자들의 염불 행법을 하나 소개한다.

먼저 도입부에는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48대원 나무아미타불~' 하며 하루 정해진 숫자만큼 염불을 한다. 그리고 염불을 끝내고자 할 때는 회향발원문 '稽首西方安樂刹 接引衆生大導師 我今發願願往生 惟願慈悲哀攝受: 서방 안락 국토에서 중생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크신 스승님께 머리 숙여 절하오니, 자비로써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염송하고 다시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이 염불수행한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미쳐 나와 중생들이 마땅히 극락세계에 태어나 무량수 부처님 뵙고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회향공덕게송으로 마친다.[49] 회향발원문과 회향공덕게송이 유사한데, 공덕게송은 「염불작법」이나 이후의 『일용작법』(1869) 『석문의범』(1935) 등의 장엄염불(정토업) 행법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대의 『통일법요집』 장엄염불 편에는 회향발원문이 보이지 않고, 공덕게송만 나타나 있다.[50] 최근에 이르러 두 게송이 합편돼 보급되었다고 보이지만, 이 행법을 지송하는 스님은, 공덕게송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일정한 숫자를 정해놓고 하거나 날짜를 정해놓고 하거나 간에 염불은 수행자의 발원에 따라 일정한 격식의 의례로 행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

49) 이 행법은 동국대학에서 영명 연수 스님의 정토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법상 스님이 일상에서 행하는 행법이다. 법상 스님은 일일 만 번의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목표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50)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조계종출판사, 2003), p.52.

보인다.

화계사 만일염불회의 공덕주 월명 화상은 50년 동안 한결같이 염불을 하였다고 본다면 특정 결사체를 형성해 염불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아마도 두 번째 방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염불수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도하 사암에서 염송되는 조석 송주도 염불작법의 변용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라) 염불의 과실

염불을 해서 얻어지는 과보에 대해 알아보자. 『아비달마구사론』에는 다음과 같이 염불의 득익을 논설한다.

> 사람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모든 산 동산 총림 신성시 되는 수목 등에 많이 귀의한다. 이러한 귀의는 수승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귀의는 존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귀의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진리와 승가에게 귀의하면 사성제 가운데서 항상 지혜로 관찰하여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 영원히 여러 가지 고통에서 초월할 줄 안다. 또 팔정도를 알아 안온한 열반에 나아간다. 이러한 귀의가 가장 수승하며, 이러한 귀의가 가장 존귀하기에 반드시 이 귀의에 의해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51]

『증일아함경』에는 "여래의 형상을 친견하고 나서 스스로 '나무여래지진정등각'이라는 명호를 불렀다. 이러한 인연으로써 좋은 음성을 얻었다.

---

51) 『아비달마구사론』(『大正藏』 29), p.76c.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선견천상에 태어난다"[52]고 하며 칭명의 공덕을 서술하고 있다. '나무불'의 칭명은 이후 염불사상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때 '나무'에는 귀의의 의미가 없이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르는 것으로 발전하였고,[53] 또 초기 불전의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은 귀의의 게송 이상의 뜻을 담은 것으로 주문의 기능과 같이 적용된다.[54] 이렇게 삼보를 칭명해 삼악도의 고통을 소멸한다고 <작법절차>의 '삼귀의 의식'에 표명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폈다.

염불의 과보는 왕생극락과 보리도를 이룰 수 있지만 염불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공덕이 크다. 『대지도론』에는 "수닷다 장자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나서 마음속이 환희향 부처님께 예배하며 법을 듣고 난 후 도를 이룰 수 있었다. 세리라 바라문은 계니야결발 바라문으로부터 처음 부처님 명호를 듣고 마음이 환희에 가득 차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법을 듣고 도를 이루었다"[55]고 하고 있다. 그래서 「화계사만일염불회창설기」에도 월명 스님에게 동료 스님들은 염불과 금고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56]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화계사의 만일염불회가 언제까지 어떻게 존속되었는지는 자료와 전승의 한계로 잘 알 수가 없다. 염불만일회가 원칙적으로 진행되었다면 1937년에 회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근거로 1937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정토도량이었으나 이후 선 도량으로 바뀌었다고[57] 하는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조선후기 이래 한국불교는 염불·강경·

---

52) 「증일아함경」 권24(『大正藏』 2), p.674b.
53) 李太元, 『念佛의 源流와 展開史』, p.75.
54) 서윤길 편저, 『밀교사상사개론』(밀교총지종 법장원, 2003), pp.60~61.
55) 「대지도론」(『大正藏』 25), p.313c.
56) 奉佺 識, 「화계사만일염불회창설기」, 『화계사약지』, p.12.
57) 김성도, 「화계사 가람의 특성과 역사성」, p.101. 주 25.

참선의 삼문수행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므로 특정 사찰을 정토도량, 선 도량이라고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58] 한국불교의 융통성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또 『선문일송』과 같은 의식문의 편재된 의례도 그렇고, 또한 참선을 주로 사찰에서도 다양한 다라니를 염송하거나 염불에 의지한 서방 정토 왕생의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화계사만일염불회의 공덕은 무엇일까. 1958년 이래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한 수덕사 문중의 고봉 스님과 숭산 스님 같은 선사들이 화계사에 바랑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생을 염불 수행하여 적수공권에서 수백 마지기의 밭을 일군 월명 스님은 그 공덕으로 화계사에 만일염불회를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염불의 공덕으로 왕생극락을 이루고 유심정토를 이루었다면, 화계사 만일염불회의 염불소리는 화계사 골짜기에 골고루 훈습되었을 것이다.

또 100년 전 화계사 대방의 염불 수행자들은 염불회의 자량으로 충분한 보시 아래 염불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자의 선근과 정진에 따라 현세에 혹은 내세에 등공(騰空)의 과보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만의 왕생극락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타일시 성불도를 늘 발원하였고, 그들의 발원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염불소리가 화계에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한 지 채 반 년도 안 된 1950년대 말 화계사에 대선지식들이 바랑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

58) 밀교 이전의 도량은 사찰을 대신하는 스님들의 수행처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선 시대에 널리 쓰이는 수월도량 공화불사는 관상법에 의해 행해지는 밀교식 공양법회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수월도량은 공화불사라는 말과 같이 관음의 도량이라는 것이 아니라 못에 비친 물과 허공의 꽃이라는 뜻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도량이라는 표현은 법회로 대체될 수는 있지만 도량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어(結語)

『화계사약지』의 자료와 『화계사논문집』의 논의와 인연 사도(師徒)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화계사에 있었던 안팎의 문화를 '의례'라는 매개를 통해 나름 읽어 보았다. 천년고찰 화계사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 특히 이곳에서 머물며 수행하고 신행한 역사를 의례로 읽고자 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었다.

이곳은 영험 있는 땅이고 역대 수많은 조사 종사 스님들이 수행해 영험을 얻은 곳이기 때문이다. 영험 있는 이곳에서 수행하여 영험을 얻고, 수놓은 아름다운 업적은 오늘의 후손들이 신수(信受)하고 봉행(奉行)하여 널리 유통해야 할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일별해 보았듯이, 왕실 집안과 인연 있는 사찰로 면면히 그 역사를 이어오던 화계사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화계사를 삼창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확고한 왕실의 후원으로 가람이 정비되어, 수행 정진하는 곳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궁인들은 정성을 다해 불전을 중수하고 불량답을 마련하여 헌공을 하였으며, 사중 수행자들의 성도계를 결성하여 천년백년 불전에 공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출가와 재가 신도가 합심해 부처님을 시봉하며 수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는 참선·간경·염불의 삼문수행을 겸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후기에는 염불수행이 크게 유행하였다. 비록 화계사에 만일염불회가 창설된 것이 1910년의 일이었지만, 그 이전 50년을 한결같이 염불 수행하고 득과하여 만일염불회가 창설될 수 있도록 평생 모은 재산을 출연한 월명 화상이 있었다는 것은 염불 수행의 전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염불의 과보는 본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찰 안팎에까지 미쳐 현

대에 이르러 숭산 스님과 같은 대 선자를 수용하여 세계 속에 한 송이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복덕을 닦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에 영험이 있으면 사람을 얻어 그 영험을 이루고; 사람에게 영험이 있으면 때를 얻어 공을 이룬다'[59]고 「화계사중수연기문」은 선언하고 있다. 중수의 연기를 밝히는 서두는 화계사의 역사와 현재를 갈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허동은 탄문대사를 얻었고, 화계동은 서평군·덕흥대군·흥선대원군·조 대비 등의 신자(信者)와 신월(이건) 도월(중건) 용선·범운(삼창) 화상 등을 얻어 사찰 중흥의 공을 이뤘다. 근대로 이행되는 20세기를 전후하여 월해·월초·월명 등의 제 화상이 등장하여 교학과 수행의 전통을 다졌고, 현대의 고봉·숭산 같은 고사를 얻어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에 선풍을 드날리는 공적을 이루었다. 명지 영산이 인물을 얻고, 인물이 조화롭게 사람과 때를 얻어 이뤄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계사는 꽃이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답고 절이 아름답다고 해서 세 가지 아름답다고 했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다. 나라 안과 나라 밖에서, 영험한 이곳을 알고 찾아와 수행하고 신행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영험한 이곳을 찾아낸 이들이 아름답다. 일주문을 들어설 때부터 행자는 그 깊은 울림 속에서,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수행을 신행을 꽃 피울 것이다.

화계사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육조단경』의 달마 화상 게송과 이를 해석하며 갈파하는 육조 혜능 대사의 두 게송을[60] 음미하며 글말을 닫으려 한다.

---

59) 道月 誌, 「화계사중수연기문」, 『화계사약지』, p.2.

60)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大正藏』 48), p.344a; 344b. 대정장에는 '玆士'가 '唐國'으로, '迷情'이 '名淸'으로 나오지만 智禪 撰, 『五種梵音集』(『한국불교전서』 12, p180)에 의거하여 교정한 것이다.

吾本來玆土 傳法救迷情 一華開五葉 結果自然成
내가 본디 중국에 와서/ 종지를 전하여 미욱한 사람을 구제하니
한 꽃에 다섯 잎이 피어/ 열매를 맺고 자연히 익는다.

심지(마음)에 그릇된 꽃이 피니/ 다섯 꽃잎은 뿌리를 좇아서
함께 '무명의 업(業)'을 지으며/ 업의 바람을 쐰다.
심지(마음)에 바른 꽃이 피니/ 다섯 꽃잎은 뿌리를 좇아서
함께 반야지혜를 닦아/ 훗날 부처의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리라.

한 꽃에서 피어난 다섯 잎, 혜능의 해석을 빌면 다섯 꽃잎은 일심 일체의 오온이라고 할 수 있다. 무명의 업을 짓는가, 반야를 닦는가에 따라 업풍에 휩쓸리거나 무상보리를 이룬다고 하였다. 화계사에서 시작되어 세계에 선법을 꽃피운 숭산 스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국제선원은 화계사가 피워낸 세계의 한 꽃이다. 세계일화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증일아함경」 권24(『大正藏』 2)
「잡아함경」 권42(『大正藏』 2)
「佛說阿彌陀經」(『大正藏』 12)
「無量壽經」(『大正藏』 12)
「오천오백불명신주제장멸죄경」(『大正藏』 14)
竺法護 譯, 「佛說盂蘭盆經」(『大正藏』 16),
대지도론」(『大正藏』 25)
『아비달마구사론』(『大正藏』 29)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大正藏』 48)
慧遠, 「念佛三昧詩集序」, 『廣弘明集』 권30(『大正藏』 52)
一然 撰, 『三國遺事』, 『한국불교전서』 6,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전라도 담양 용천사 간행, 「염불작법」,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집, 삼성암, 1993.
學祖 譯, 「작법절차」, 박세민 편,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1輯, 삼성암, 1993.
權鍾植, 『三角山華溪寺畧誌』, 三角山華溪寺宗務所, 昭和 13年(1938).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硏究』 개정판, 博英社, 1966.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2003.
서윤길 편저,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총지종 법장원, 2003.
수암,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 화계사, 2013.
沈祥鉉, 『佛教儀式各論』 Ⅴ, 한국불교출판부, 2001.
藝能民俗硏究室, 『佛教儀式』, 文化財硏究所, 1989.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2011.
李太元, 『念佛의 源流와 展開史』, 운주사, 1998/2003.
최완수, 「화계사」, 『명찰순례』 3, 대원사, 1994.
한보광, 「萬日念佛結社의 成立과 役割」, 『信仰結社硏究』, 여래장, 2000.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홍윤식, 『영산재』, 대원사, 1991.

金容祚,『朝鮮前記의 國行祈禳佛事硏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김성도,「화계사 가람의 특성과 역사성」,『화계사학술논문집』, 2013.
오경후,「朝鮮後期 王室과 華溪寺의 佛敎史的 價値」『화계사논문집』
이성운, 전통문화 수륙재 복원을 위한 고찰」,『수륙재의 향연 학술 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013.
이성운,「영산에 꽃 피운 일응 어장」, (사)일응어산작법보존회·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편,『영산에 꽃 피다』, 정우서적, 2013.
지미령,「화계사 제작 불화의 미술사적 의미」,『화계사학술논문집』, 2013.

Abstract

Culture around Hwagye Temple in view of Euirye(儀禮, ritual)

Lee, Sung-woon / Dongguk Univ

This essay is a bit of literary writing on the history and the culture around Hwagye Temple in veiw of the keyword, 'Euirye(儀禮, ritual)'. Above all, the history of Hwagye Temple is considered with the word, 'a lamplight and a candlelight(燈燭)'.

Firstly, Sinwol Hwasang(virtuous monk) moved Bodeok Hermitage located in Buheodong to the current site of Hwagye Temple, built it and named as Hwagye Temple with accepting Seopyonggun Mr. Lee's suggestion in 1522, and it was reconstructed thanks to the donation(Dana) of Deokheung Daewongun's family in the early 1619 after its sanctum was burned down by a fire in 1618, and then rebuilt again with Heungseon Daewongun(1820~1898) offering in 1866. This history of Hwagye Temple is illustrated compared to the practice of the protocol lightening a lamp and a candle. The history and the ritual culture around Hwagye Temple is considered in that the history passed down even faintly is described as 'dim light of a lampe and a candle', the fact of having inherited

Beopdeung(法燈, the lamp of Dharma) in the historical maelstrom as 'Beopdeung(the lamp of Dharma) in the wind', and the case of Beopmaek(法脈, the Dharma lineage) handed down without disconnection as 'the inter-successisive lamp of Dharma'

Secondly, the practice of offering to Buljeon(佛殿, Buddha sanctum) and holding Jae(齋, offering ritual) to monks and nuns is that of donation(dana) which has been carried out since Buddha's lifetime and liaises between Sangha and the laity. Buddha and practitioners give lay people Dharma-offering and fearlessness and lay people give offerings so that monks and nuns may devote themselves to the discipline. Sangha depended on Takbal(托鉢, mendicancy) during the Early Buddhism period but it was maintained with the produce from the manor contributed to the temple since then, and Hwagye Temple called as Palace Temple was supported by court ladies who kept Gongbul(供佛, offering to Buddha). Her highness, Cho(1808~1890), the devote patron who enshrined an embroidered image of Gwanseumbosal(觀世音菩薩, Avalokiteśvara) at Gwaneumjeon(觀音殿, Avalokiteśvara sanctum) in Hwagye Temple, exchanged her contributed property into farm land in order to provide food to Buljeon(Buddha sanctum) and made it food for Gongyang (供養, offering) to dedicate every year and consecrated food to Gwaneumjeon(Avalokiteśvara sanctum) again. Also, monks and nuns in the temple organized Seongdogye(成道稧, traditional private fund for attaining enlightenment) in 1905 so that they arranged offering for the sake of their own and others' Seongdo(成道, attaining enlightenment). Like this, Sabudaejung(四部大衆, the fourfold community) participate in offering to Buddha all together.

Thirdly, Yeombul(念佛, chanting Buddha), which is to chant Buddha's

name, is the practice for the laity to take part in with ease as Ihaengdo(易行道, easy path to enlightnement), contrary to Chamseon(參禪, meditation practice) known as Nanhangdo(難行道, difficult path to enlightenment). A large room in Hwagye Temple is a room for Yeombul(chnating Buddha) so that court ladies might visit it and practice it. 'Manil Yeombulhoe(ten thousand days Chanting Buddha assembly), which is to practice Yeombul(chnating Buddha) for ten thousand days, was organized in 1910 with Yeombul practioner, Wolmyong Hwasang(virtuous monk) contributing his lifelong farm land when he was about to do Ipjeok(入寂, Parinirvana). Yeombul(chnating Buddha) practiced widely as Sammun(三門, three gates) practice along with Gangyeong(看經, ardent reading of a sutra) and Chamseon(參禪, meditation practice), is the main practice of Koren Buddhism since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and its Virtue(Guna) is great. It can be the gains and the fruit(得果) for Seonjisik(善知識, learned and virtuous masters) such as Gobong, Sungsan, etc to take their Barang(a Buddhist sack) off at Hwagye Temple at the point of time when it hasn't passed about 20 years after the late 1930s and when Hoihyang(廻向, Merit-transference) of 'Manil Yeombul(ten thousand days Chanting Buddha) was made. Sungsan Seonsa(禪師, Zen master) at Hwagye Temple has greatly accomplished international dissemination, which began at Hwagye Temple where flowers, the valley and the temple are beautiful. Since then, the interantional Seonwoen(禪院, Seon monastery) opens here and settles down as a center of World Buddhism. Those who visit Hwagye Temple at home and abroad, and give offerings to Buljeon(Buddha sanctum), practice Yeombul(chnating Buddha), meditation and Segye Ilhwa(世界一花,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following the discipline and the rites of virtuous foregoers, are one of four beauties(四美) along with flowers, the

valley, and the temple[三美, three beauties] of Hwagye Temple.

Keyword: Hwagye Temple, Euirye(儀禮, ritual), a lamplight and a candlelight(燈燭), Gongbul(供佛, offering to Buddha), Seongdogye(成道稧, traditional private fund for attaining enlightenment), Manil Yeombul(萬日念佛, ten thousand days Chanting Buddha), the gains and the fruit(得果)

원고접수: 2014. 01.20	심사완료: 2014. 02.10	게재확정: 2014. 02.20